

# 최근의 국제석유시장동향과 전망

##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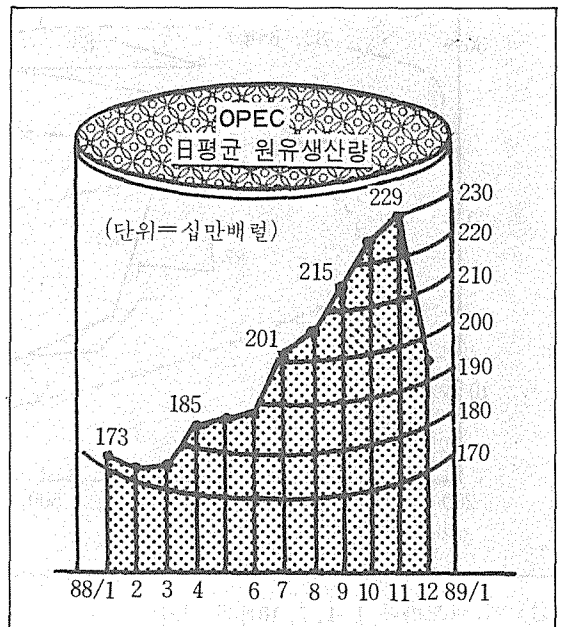
### 1월중 OPEC산유량 350만 b/d감소

최근 2월초순의 IEA보고서를 보면, 국제油價 회복에 부심하고 있는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1월중 원유 생산량을 전월에 비해 350만 b/d나 대폭 감축하여 1,940만 b/d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 규모는 아직도 현 OPEC産油쿼타 1,850만 b/d를 다소 상회하는 것이므로 국제유가회복세를 이끌려면 어느 회원국이던 조금씩 더 減産해야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OPEC회원국들의 산유협정 준수를 통한 유가상승유도의 노력으로 평가한다.

1월중 공산권을 제외한 자유세계의 석유공급량은 前月對比 400만 b/d 감소한 4,940만 b/d인데,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OPEC회원국의 減産分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1월말 평균 1.5~1.8\$/B 정도 상승하고 있는 원유가격 추이와 관련하여 OPEC의 감산 의지 및 사우디의 산유량조정역할 復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석유수출收入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는 OPEC 각국은 새로운 産油쿼타에 불만족한 실정이므로 쿼타 준수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가령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보면, 1월중 70만 b/d나 감산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국할당량 100만 b/d 보다 50만 b/d나 초과한 150만 b/d를 생산했던 것이다. 사우디의 경우는 OPEC 13개국중 감산폭이 가장 커서 1월중 450만

b/d를 생산 - 전월보다 200만 b/d나 감축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 사우디가 다시 스윙·프로듀서(산유량조절자) 역할을 떠맡는 것이 아닌가 하고 유가상승과 관련하여 우려를 나타내는 업저버도 있었으나, 최근 日本의 중동경제연구소 분석은 사우디가 생산조절자로 되돌아가지 못할 상황임을 다음과 같은 要因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 油價低下와 生産量增大

88년 11월말의 OPEC총회에서는 새로운 산유할당량에 합의함으로써 그 이후 국제원유시세가 다소 강세로 흐르는듯하다. 단기적인 유가예상의 여러요소 가운데 요즘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自國경제여건상 허용할 수 있는 석유收入의 下限線이 얼마인가를 꼽고 있다. 왜냐하면 非OPEC도 그렇지만 특히 OPEC각국 가운데 산유량을 조절(減産)할만한 여유가 있는 곳은 그래도 사우디 뿐이며, 따라서 그 산유량조절폭이 유가조정폭과 어느정도 함수관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우디의 財政 및 國際收支面에서 석유收入의 가능한 下限線이 유가움직임의 선행지표로 시사된다는 것이다.

〈그림-1〉은 석유불황이 나타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사우디 原油價格과 生産량의 관계를 매년 1, 4, 7, 10월 시점에서 표시한 선이다. 이전의 패턴을 잘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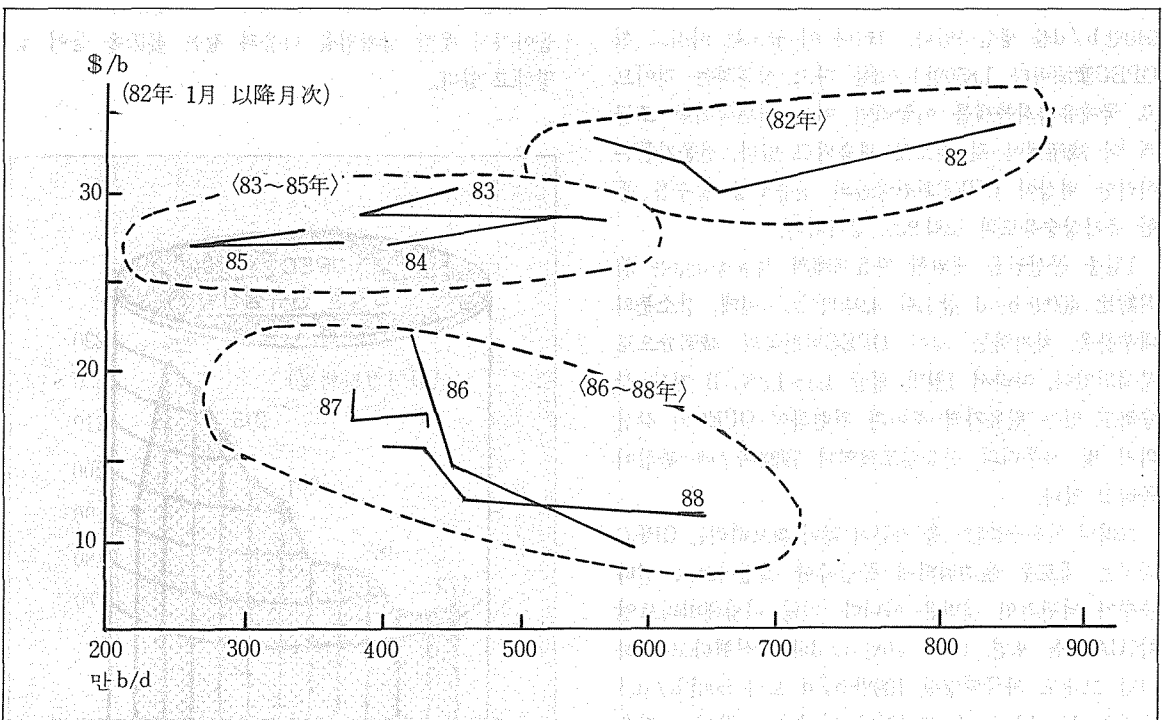
그동안의 사우디 석유정책이 86년도부터 분명히 달라진 것을 읽을 수 있다.

즉 85년까지는 가격하락 및 수요감퇴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생산조절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OPEC원유에 대한 需要가 증가되지 못하자, 사우디는 재정핍박의 중압감 때문에 생산조절자역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86년 이후에는 네트·백價格판매(※Netback System = 생산된 석유제품의 시장가격에서 정제코스트를 빼주고 남은 가격으로 그 원유의 값을 정하는 實行)을 활용하여 판매세어(거래량)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가격은 가격대로 약해지고 산유량은 늘어난다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이 시기는 〈그림-1〉에 나타나듯이 가격이 낮아지면 산유량이 증가한다는 상관성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사우디의 年間 석유收入을 86년이후 산유량 및 가격

〈그림 - 1〉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과 가격의 추이



〈註〉 각 년도마다 1, 4, 7, 10월의 실적임.

의 관계에서 보면, 석유內需量이 80만 b/d이고 석유 회사 아람코(ARAMCO)社에 대한 경비지불등 생산코스트를 1배럴당 3달러로 가정할 때 年間 170억달러가 된다. 또한 생산조절자役을 포기하기 직전과, 원유 固定油價格制로의 복귀를 결정하였을 때의 석유수입은 130억달러가 된다. 이러한 실적에서 사우디는 86년 이후에 통상적으로는 170억달러정도를, 그리고 下限線으로는 130억달러의 수입을 想定하면서 석유정책을 강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石油收入曲線 140억달러

이상의 관점을 더욱 깊이 검토하기 위해 1980년 11월 이후의 매주 생산량과 가격의 실적으로부터 석유收入을 計測하면 <그림-2>와 같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최근시점을 계산하면 사우디石油收入이 140억달러선에 오르내린다. 이는 곧 석유정책의 전환이 필요할만 한

下限値에 근접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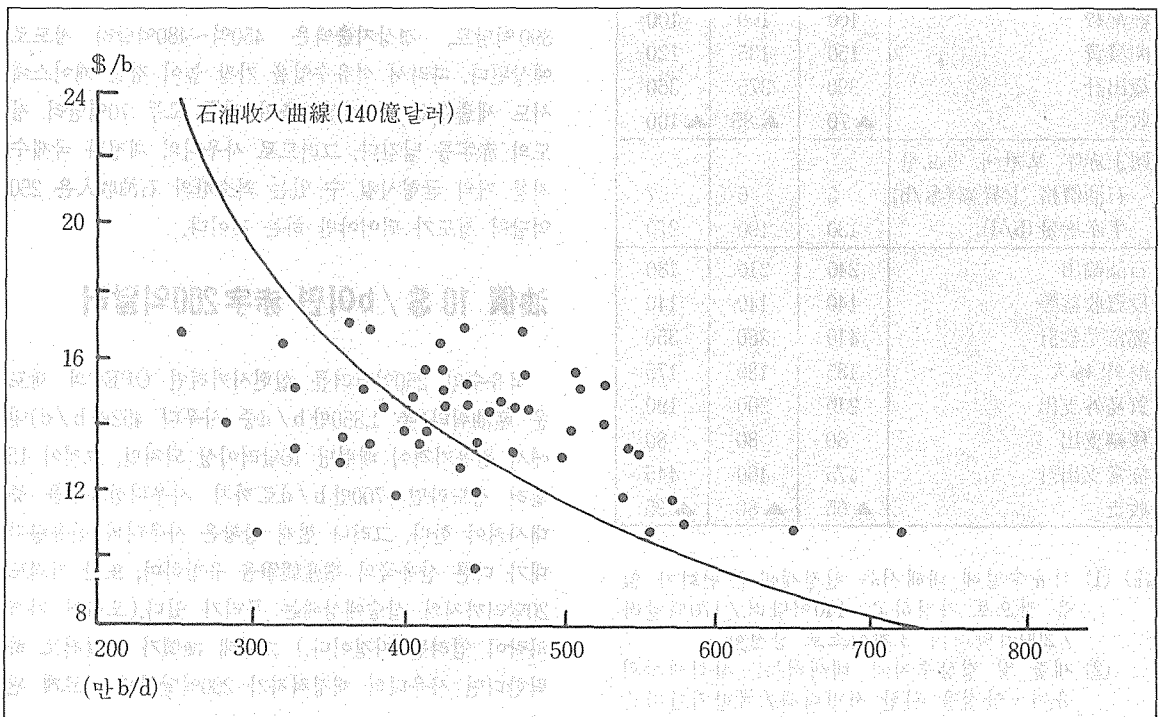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 收入曲線(140억달러)의 밑에서는 유가 10\$/B 수준일 때 산유량은 630만 b/d 이상이어야 하며, 18\$/B 까지 회복(상승)되면 사우디産油량이 340만 b/d로도 족하다. 허지만 이런 규모의 석유收入은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수입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임을 그들의 財政 및 國際收支를 보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즉 재정 및 국제수지 어느면에서건 간에, 83년 이후 일관된 赤字가 계속되고 그동안의 누적적자는 양면 모두 700억달러나 된다.

### 石油收入 최저 250억달러 필요

그러면 사우디에 현재 필요한 석유수입은 최저 어느 정도인가.

88년도의 재정규모는, 석유收入이 최대이었던 시점에 비해 5분의1의 수준으로 줄어들었음을 반영하여, 歲入

<그림-2> 사우디아라비아의 石油收入



<註> 그림속의 점들은, 87년 11월 이후 주간단위의 산유량 및 가격의 실적임.

을 280억달러로 歲出은 380억달러로 잡았다. 세입·세출의 對GDP(\*국내총생산규모) 비율은 각각 43% 및 62%에 해당한다. 세입이 감소함에 대처하여 세출규모도 줄여나가게 마련이지만, 세출의 삭감스피드는 빠르지 못하다. 실제 세출규모를 보면, 87년도 세출이 제2차석유위기 직후인 80년도 세출수준으로까지, 또한 88년도 세출은 제1차석유위기 후인 75~76년 당시 수준으로까지 돌아간 것이다.

세출의 내역은 ▲국방 및 치안비 ▲개발비 ▲경상비가 각 3분지1을 차지한다. 各費目的 최근동향을 보면,

〈표-1〉 사우디의 財政收支와 國際收支의 試算

(單位: 億달러, ▲는赤字)

	케이스1	케이스2	케이스3
石油收入	200	170	140
—前提			
石油價格(\$/b)	18	15	13
生産量(b/d)	452	470	452
歲入計	320	290	260
國防·治安費	140	140	140
經常費	100	100	100
開發費	150	135	120
歲出計	390	375	360
收支	▲70	▲85	▲100
同上赤字 보전에 필요한			
石油價格 上昇幅(\$/b)	5	6	7
生産增量(b/d)	130	190	270
石油輸出	240	210	180
投資收益等	140	140	140
經常受益計	410	380	350
財의 輸入	185	180	175
貿易外支出	210	200	190
移轉支出	80	80	80
經常支出計	475	460	445
收支	▲65	▲80	▲95

〈註〉 ① 석유수입에 대해서는 현정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140억달러 / 170억달러 / 200억달러의 3케이스로 상정함.

② 세출 및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사회체제의 유지·안정을 위한 서민대책 / 국방치안비 / 輸入등의 대폭삭감은 곤란하다고 가정할 후, 石油收入과의 관계로 시산함.

開發費가 석유收入 감소에 따라 80년대 전반기에 인플레이스트릭처 및 기간산업프로젝트에 있어서도 크게 삭감되었다. 이에 비하면 보조금이나 원조·공무원급여등으로 구성하는 經常費는 아주 조금만 삭감되었으며, 國防 및 治安費는 3%정도씩 계속 증가했다는 추세이다. 이는 체제의 안정·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쉽사리 삭감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국제수지를 보면, 경상수익이 81년 이후 피크때에 비해 4분지1로 줄어들고 경상지출은 2분지1로 줄었으므로 83년 이후 100억달러를 넘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수지가 적자상태로 전락된 후의 평균으로는, 470억달러의 경상수익에 비해 610억달러의 경상지출이었으므로 결국 140억달러의 적자로 되었다. 그리고 87년을 보면, 경상수익 360억달러에 비해 경상지출은 460억달러이므로 국제수지적자는 100억달러 이었다.

이상의 실정을 근거로 하면, 지금 정도의 경제활동수준을 유지할 경우 사우디의 최소한도 세출수요와 石油收入下限線을 시산해 볼 수 있는 바, 그 결과가 〈표-1〉이다.

이 표에 나타나듯이 사우디의 세출수요는 360억~390억달러, 경상지출액은 450억~480억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따라서 석유수입을 가장 높이 잡는 케이스에서도 세출수요 및 경상지출의 양쪽 모두 70억달러 정도의 赤字를 남긴다. 그러므로 사우디의 재정과 국제수지를 거의 균형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石油收入은 250억달러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 油價 10 \$ / b이면 赤字 200억달러


석유수입 250억달러를 실현시키려면 OPEC의 새로운 産油쿼타(총 1,850만 b/d중 사우디 452만 b/d)내에서 원유가격이 배럴당 10달러이상 되지만, 그것이 15달러 정도라면 700만 b/d로까지 사우디산유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사우디의 산유량확대가 다른 산유국의 增産競争을 유발하며, 또한 가격도 20달러까지의 상승예상에는 무리가 있다.(오히려 가격하락이 염려될 지경이다.) 그런데 油價가 10달러로 하락한다면 사우디의 재정적자가 20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아무리 돈 많고 부존자원이 많은 사우디라 하여도 이

러한 적자상태를 장기간 감내할 수는 없다. 때문에 油價引上에의 誘因이 작동하여 減産을 포함한 갖가지 대응책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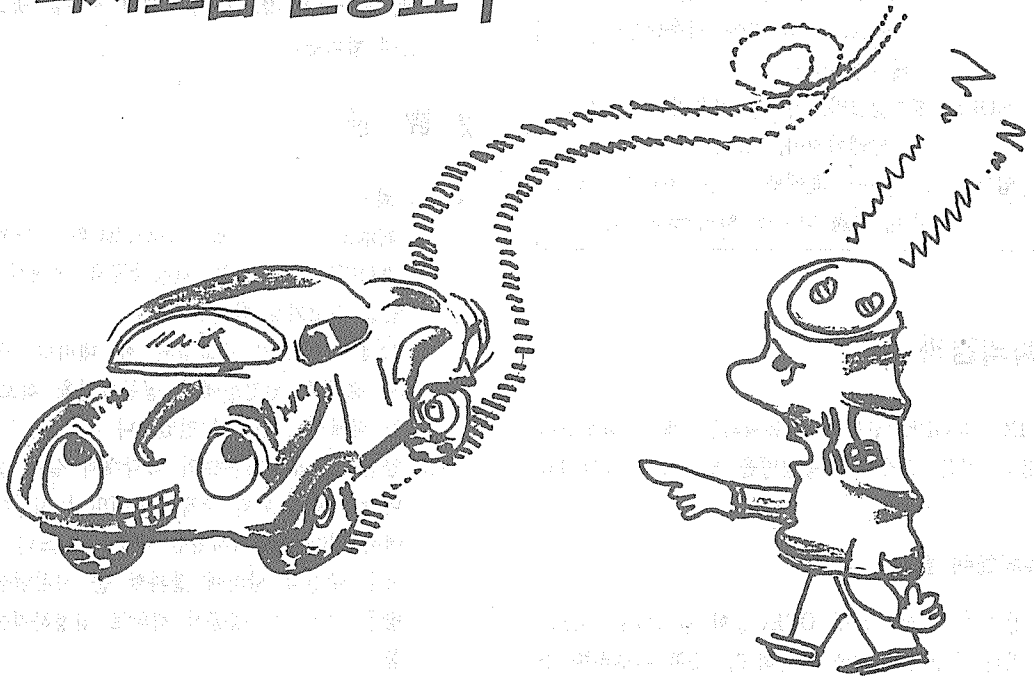
그러나 OPEC각국의 증산압력이 잠재적으로 강력한 지금, 사우디의 산유량감축이 가격상승을 가져온다는 보증도 없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따져보았듯이, 사우디의 재정상태가 일정기간의 減産을 계속할 정도

로 여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우디가 85년까지 해왔던 스윙역할을 앞으로 다시 떠맡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성립되지 못한다. 어디까지나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만 감산 혹은 증산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日本經濟新聞>

# 석유안경

## 택시요금 인상요구



油價가 2년여 사이에  
45.9% 내렸는데  
택시요금을 올려달라니.....

홍안호